



# 책으로 배우는 '슬기로운 갑질 대처법'

“어떤 자리에서든 말할 기회가 생기면, 아무리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미시간주립대학의 박희선 교수도, ‘어떤 의견이든 확실하’ 말하는 편이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데이터를 밝혀냈다.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다.”(‘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중에서)

최근 공분을 샀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파문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에 이어 부인인 이명희 씨의 갑질, 밀수와 탈세 의혹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 집회를 열고 조양호 일가 퇴진을 외치는 등 갑의 횡포에 맞섰다. 더 이상 갑들의 끈질긴 행태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려는 의도다.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상처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갑질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신의 생각을 무례하지 않게 드러내는 법을 담은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파크도서의 판매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기계발 ‘대화/설득’ 카테고리 도서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다.

일본 심리학 교수 나이토요시히토가 펴낸 책은

##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등 ‘대화·설득’ 관련 도서판매 증가 원활한 소통·자기관리에 초점

도발적인 제목만큼이나 내용 또한 범상치 않다. 저자는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한 것은 당신이 ‘만만해 보여서’라며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상대에게 놀림을 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그 두 배로 되돌려줘야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관두자’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타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말투, 자신감 있게 만드는 한마디 등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팁이 담겨 있다.

정문정 작가의 에세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도 판매 강세다.

지난 1월 발간된 책은 출간 즉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무례한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지 않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법 등이 수록돼 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당장의 평화를 위해 상대의 무례를 용인한다면 그의 무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유머 있는 사람이라고 각각할 그 상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기도서로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인문서 ‘언어폭력’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전략과 기술을 모은 자기계발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등이 있다. ‘품격 있는 대화’, ‘말 그릇’ 등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대화의 기술을 다룬 자기계발서들이다.

인터파크도서도 권미혜 자기계발 MD는 “‘갑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다. 부당하지만 억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스24 주간 베스트셀러에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자기계발 2위)과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하는 법’(종합 9위)도 상위에 올랐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최근 한달간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30대(30%)와 40대(37%) 등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층에서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이 63%, 남성은 37%로 여성의 구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말 그릇’(자기계발 3위), ‘같은 말도 듣기 좋게’(자기계발 8위),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자기계발 17위)도 인기를 끌었다.

에스24 자기계발 김현주 MD는 “자존감,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하는 법’ 등의 베스트셀러가 탄생했다”며 “누구나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목과 내용을 가진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화법’을 주제로 한 책들이 과거에는 화술과 협상이 주를 이루었다면, 작금에는 소통과 자기 관리 쪽으로 바뀐 측면이 있다.

교보문고 홍보 담당자는 “예전에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화 자체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4차 산업혁명의 예술’ 내일 문화전당서 강좌

2018 문화도시 오픈스쿨 ‘문헌성시’(문화 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간)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내 라이브러리파크 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주최하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후원한다.

주제는 ‘미래 예술소비자와 4차 산업혁명’이며 김인설(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다.

발제는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문교수)의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미래, 예

술시민(권)을 위하여’를 시작으로 이기형(아시아문화원 융복합콘텐츠 팀장)의 ‘재미법화 시대: 예술소비자의 기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세준(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숙명여대 교수)과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강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메일(go2river@naver.com)과 전화(010-2872-5518)로 사전접수를 하면 되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오남 작 '봄나들이'



이형주 작 '한청-청자의 빛을 지키다'

## 50돌 맞은 광주무등사진동우회 발자취

### 7월1일까지 광주시립사진전시관

1968년 3월 10일 첫발을 내딛은 ‘광주무등사진동우회’(회장 이형주)는 호남 지역에서 처음 생긴 사진 예술 동아리였다. 오랜 세월과 함께 회원들이 앵글에 담아온 피사체는 한 시대의 역사이자 초상이었다. 광주무등사진동우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전시회를 열었고 20주년, 30주년 작품집도 발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광주무등사진 동우회의 50년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회 ‘빛으로 그리다’전이 오는 7월1일까지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매년 지역 사진 예술단체 지원과 사진 예술 진흥을 위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사진단체 초대 공모에서 선정돼 기획됐다.

단체의 발자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현직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50년 전 창립 당시 사진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과 현 회원들의 창작 열

기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며 그룹의 발자취를 기록한 회의록과 기념 촬영사진 등을 모은 ‘리멤버’ 코너도 마련했다.

전시작은 16명의 현직 회원 작품 32점과 개별 주제작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한 대형 조사진 16점, 그리고 별세하거나 은퇴한 전 회원들의 역사성 있는 16점의 작품 등 총 60점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25일 오후 5시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내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현재 회원으로 활동중인 강경숙·강종봉·강원원·김대후·김준행·문운남·박근형·박수희·안성철·양희우·이동명·이학철·이형주·정해선·지정원·윤장현(명예회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고인이 된 김한수·최병오·이경섭·이진권 작가를 비롯해 김석기·김진용·문병호·박승수·송희범·임서현·전오남·정건우 등 전 회원들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문의 062-613-71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한,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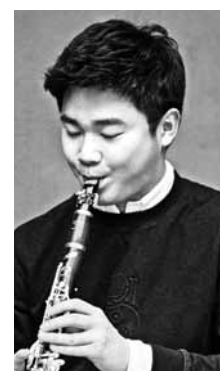
### 6월18일 ‘디토 앙상블’ 광주 공연

클라리네티스트 김한(22)이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인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임명됐다고 소속사인 크레디아가 21일 밝혔다.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최초의 한국인 단원이기도 하다. 김한은 지난 17~18일 4차에 걸친 오디션 끝에 부수석으로 임용이 결정됐으며,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친다.

그는 주로 솔리스트나 실내악 주자로 활동해오다가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경험을 했다.

2007년 금오영재재단서트를 통해 데뷔한 김한은 2009년 베이징 국제음악콩쿠르 ‘최고 유망주상’,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2016년 프랑스 자크 랑슬로 콩쿠르 우승 등을 거머쥔 기대주다. 예원학교와 싱가포르 국립예술학교, 이튼칼리지, 길드홀 음악원을 거쳐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자비네 마이어를 사사했다.

김한은 오는 6월18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디토 다이아믹’ 공연에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쉐 등과 함께 앙상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